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 주임신부 : 권지훈(베드로)
- 사목회장 : 김성연(야고보)
- 사 제 관 : (808) 422-1040
- 사 무 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mailto: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 <https://standrewkimhawaii.org>

제2285호

2026년 1월 25일(가해)

미사 안내	평일	화, 수, 금 : 오전 10:30 목 : 오후 7:00 (성체 강복: 매달 첫 번째 목요일 7시 미사 중)	주일	토 : 오후 4:00 일 : 오전 06:30, 10:30 오후 4:00 (St. Peter & Paul 성당, 매월 셋째 주 마우이 공동체 오후 2:30)
연령회		병자성사,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 환자 또는 망자 발생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 연령회장: 김미아 헬레나 (808) 291-7811		



## 오늘의 미사

## 연중 제 3주일

▶ 1독서 : 이사야서 8,23-9,3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 화답송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이시다.	
▶ 2독서 : 코린토 1서 1,10-13,17	▶ 복음 : 마태 4,12-23

성가 ▶ 입당: 43 ▶ 봉헌: 512, 511 ▶ 성체: 496 ▶ 파견: 478

① 2월 15일(일)은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② 2월 15일(일)은 마우이 공동체 미사(오후 2:30)가 있습니다.  
(St. Anthony Church - 1627 Mill St. Wailuku, HI 96793)

③ 2월 봉성체 안내  
2월 봉성체는 2월 19일(목, 오전) 서쪽 지역, 2월 20일(금, 오후)  
동쪽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목공지

④ 매월 셋째 주 '화해와 일치 주간' (2월 15일~21일)

⑤ 매월 넷째 주 1월 25일(일) '한끼 나눔'

⑥ 미사 참석시 명찰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⑦ 2월 14/15일 구정 합동 위령미사 30분전 연도 (새벽미사: 미사 후)

⑧ 2월 3일(화)~6일(금) 평일미사가 없습니다.



## 사목위원회

### ※ 교육분과 교리교육 공지

- 1월 25일(일) 새로운 삶의 규범들
- 2월 1일(일) 하느님 사랑
- 시간: 오전 9시 / 장소: 예비자 교리실
- 교리에 관심있는 신자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 구역 및 단체

### ① 성모회 모임

일시: 1월 25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오하나키친 뒷마당

### ② 소공동체 구역장 모임

일시: 1월 25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새신자 교리실

### ③ 펄시티 구역 모임

일시: 1월 25일(일) 5시  
문의: 김사비나 721-1055

### ④ 꾸리아 월례 모임

일시: 1월 25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컨퍼런스룸

### ⑤ 하와이카이 구역 모임

일시: 1월 25일(일)  
문의: 김글라라 349-2654

### ⑥ 와이파후 구역 모임

일시: 1월 25일(일) 6시  
문의: 안마르첼라 391-8347

### ⑦ 명도회 정기총회 개최

일시: 1월 25일(일) 오전 9시  
문의: 컨퍼런스룸

### ⑧ 알라모아나 구역 모임

일시: 1월 31일(토) 6시  
문의: 김엠마 228-0088

### ⑨ 성령기도회 모임

일시: 2월 1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 ⑩ 사목평의회 모임

일시: 2월 1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교리실

### ■ 故 노태화 프란치스코 형제님 장례미사 안내

- 연도: 2월 8일(일) 교중 미사 후
- 장례미사: 2월 11일(수) 오전 10:30
- 하관식: 2월 11일(수) 오후 3시 Valley of the Temple

### ■ 故 김영선 요한 형제님 장례미사 안내

12월 23일 2025년 향년 84세로 선종하셨습니다.

- 장례미사: 2월 13일(금) 오전 10:30 (연도: 오전 9:30)
- 하관식: 2월 13일(금) 오후 1시 Hawaiian Memorial Park

### ※ 과달루페 성지순례 우주관광 담당자와 함께하는 오리엔테이션

2월 1일(일) 교중미사 후 성당 옆  
성지순례를 신청하신 분들은 빠짐없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주님 봉헌 축일 안내 (예식: 2월 1일 교중미사 중)

2월 2일(월) 주님 봉헌 축일을 맞이하여 제대초 도네이션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미사에물 접수처 혹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025년도 개인 Tax Return용 기부금 영수증을 1월 31일부터 사무실에서 배부 할 예정입니다.

### ※ 구정 합동 위령미사 안내

2월 17일 구정을 맞이하여 2월 14/15일 합동 위령미사가 있습니다.  
미사에물 접수를 받고 있사오니 각 미사에물 접수처 혹은 사무실로 2월 13일(금)까지 접수 바랍니다.

### ※ 재의 수요일을 앞두고 성지가지를 2월 16일(월)까지 회수합니다.

### ※ 2026년 견진성사 모집 안내

신청기간: 2026년 2월 22일까지  
견진성사 일시: 2026년 4월 5일 부활 대축일

### ※ 제대초 봉헌 감사합니다.

김정자 헬레나, 염바울리나, 이영숙 누갈다, 데레사 나이트, 김창욱 엘리사  
김기옥 데레사, 이샬린 바울라, 김수정 카타리나, 서두영 로사리아

### ※ 제대꽃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박에릭 즈카리아, 서상순 안나

## 기타공지

## ※ 미사: 시작 예식(7) 대영광송에 대해서

미사의 시작 예식

입당 - 성호경 - 인사 - 참회 - 자비송 - 대영광송 - 본기도

일곱 번째, 대영광송입니다. Gloria(글로리아)라고도 불리는 대영광송은 약 500년경 미사 안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동방 교회에서는 4세기부터 수도자들이 아침 찬미와 저녁 기도 때 부르기도 했습니다. 대영광송은 사람들에게 광명과 희망의 기쁨을 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성부와 성자, 성령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대영광송은 그리스도교의 파스가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부활 축제 때나 주일과 대축일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따라, 대영광송을 부르는 미사와 부르지 않는 미사의 차이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영광송 본문을 살펴보면,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루카 복음 2장 14절을 바탕으로 “하느님께 대한 천사들의 찬미와 감사의 노래”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과 찬미의 형식을 갖춘 부분입니다. 대영광송에서는 그리스도를 각기 다른 호칭(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양)으로 부름으로써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짧은 청원 기도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성령에 대한, 즉 삼위일체의 신앙고백문입니다. 대영광송의 이러한 구조는 “성령 안에 모인 교회가 성부와 성자 그리스도께 찬양과 간청”을 드리는 기도로서, 교회 내에서 매우 오래되고, 고귀한 찬미가입니다.

로마 미사 경본 총 지침(53항)에서는 대영광송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대영광송은 성령 안에 모인 교회가 하느님 아버지와 어린양께 찬양과 간청을 드리는 매우 오래된 고귀한 찬미가다. 이 찬미가의 본문은 달리 바꿀 수 없다. 대영광송은 사제, 또는 필요에 따라 선창자나 성가대가 시작하지만, 그다음 본문은 모두 함께 노래하거나 교우들과 성가대가 교대로 노래하거나 또는 성가대만 노래한다. 노래하지 않을 경우는 모두 함께 낭송하거나 두 편으로 나누어 교대로 낭송한다. 대림과 사순 시기 밖의 모든 주일, 대축일과 축일, 그리고 성대하게 지내는 특별한 전례 거행 때에 노래하거나 낭송한다.”

대영광송은 주례 사제의 선창으로 시작하여, 사제와 교우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53항의 지침과 대영광송이 지닌 특징을 바탕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성가대만의 특송 형태로 대영광송을 부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축제의 기쁨이나 장엄함이 드러나는 대영광송은 공동체 전체가 마음을 모아 교대로 부르는 것, 곧 공동체가 함께 노래하는 것이 대영광송이 지니고 있는 목적에 가장 합당한 모습입니다.

대전교구 윤진우 세례자 요한 신부



알아두시다

<b>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b>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 599-9810, 592-5011	<b>브라이언 오토 바디샵</b> 자동차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	<b>뷰티터치 (BEAUTY TOUCH)</b>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 808-271-4802
<b>New York Life</b> 은퇴연금/학자금/투자/재무설계 차 그레고리오 808-226-3344	<b>Ginzawon (긴자원)</b> Korean B.B.Q (Waikiki) 문의: 김태영 안토니오 808-220-0768 808-922-3387	<b>묘지매매</b> 묘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심소영 / 808-798-5100

## ※ 연중 3주일 강론 요약본

오늘 말씀은 “어둠 속을 걸던 백성이 큰 빛을 본다”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이 말씀은 시적인 위로나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의 삶과 역사 안으로 실제로 들어오신다는 선포입니다. 이사가 예언자가 언급한 즈불론과 납탈리 땅은 정치적·종교적으로 소외된 변방이었지만, 하느님께서 바로 그곳을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하느님의 구원이 인간의 기준과 달리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서, 밝은 곳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시작됨을 보여 줍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떤 빛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 비추어라.”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설명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분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이 축일을 지내며,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을 경배하고, 변화된 삶으로 세상에 그분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합시다.

“어둠 속을 걸던 백성”이라는 표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멈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분주히 살아가고 있지만, 삶의 방향과 의미를 잃고 지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빛을 약속하십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신 뒤 갈릴래아로 가시고, 성전이나 제도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실제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십니다. 그곳에서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는데, 이는 위협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바꾸라는 초대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먼 미래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현실입니다.

이어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래아 호숫가에서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응답합니다. 그들이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생업을 포기했다는 뜻을 넘어, 자기 삶의 중심과 계산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니다. 제자됨은 완전한 확신의 결과가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내리는 신뢰의 선택입니다. 이 모습은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 공동체의 분열을 꾸짖으며 던진 질문,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와 깊이 연결됩니다. 공동체와 신앙의 중심에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서지 않을 때, 분열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복음의 마지막처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곳에서는 말에 그치지 않고 생명이 살아나며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미 비추고 있는 빛 앞에서, 나의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께서서는 오늘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며, 함께 가며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권지훈 베드로 신부



헌금

1월 24/25일 Church in Latin America and Black & Indian Missions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1월 17/18일: \$10,535				지난주 미사 참례자 수	총 290명
	주일헌금	교무금	2차헌금	특별헌금		
	\$3,135	\$5,955	-	\$1,445		

<b>ARBOR Financial Group NML# 236669</b>
심소영: 주택융자담당
Cel:(808)798-5100
Email:sharis@arborfg.com

<b>최 니콜 부동산</b>
Locations,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b>메디케어 보험</b>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b>광고 문의</b>
사무실
808-422-1010

<b>A'ALA Meat &amp; Seafood Inc</b>
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열 사무엘
samseo@aalametandseafood.com

<b>보나 최 부동산</b>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